

第 26 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日時：1985. 9. 19 ~ 20 (2日間)

場所：江陵市 江一女高體育館



競演：東萊학춤 / 社団法人 釜山民俗藝術保存協會

示演：左水營漁坊놀이 / 社団法人 水營古蹟民俗保存會

釜山直轄市

인 사 말 씀



보람찬 결실의 계절에 영동의 유서깊은 강릉에서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속예술은 한겨레의 삶의 애환을 가장 밀도있게 함축하여 드러내는 생활예술로서, 그 겨레의 얼과 멋을 가장 손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매체(媒体)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떼면 민속예술은 한 겨레의 정신적 모태이자 삶의 뿌리가 닿는 곳이며 자존과 긍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속예술의 전승·보전·발전에는 나라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또한 고유한 우리의 민속예술의 창달에 모든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옛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아끼며 즐겨온 우리의 조상들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많은 민속예술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며, 그것에 담겨있는 유현한 예술적 정취는 이미 세계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유산을 값지게 여겨 가꾸려함은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미래를 창조하는 전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참뜻의 하나도 바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창조적 역량 계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선보이게 될 부산시의〈동래학춤〉은 부산지방의 여러민속예술 가운데 하나로서, 고고하고 우아한 학의 모습을 의인화(擬人化)하여 간결하고 소박한 춤사위로서 우리의 정감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한 놀이입니다.

아무쪼록 강릉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관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며, 겨레의 큰잔치인 이번 경연대회가 성황 속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릉시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강릉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350만 부산시민과 함께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5年 9月 日

釜山直轄市長 鄭 埰 鎮

출 연 종 목 해 설

동래학춤 (부산직할시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1. 유 래

釜山 東萊地方의 선비들은 옛부터 鶴의 고고함을 흉내 내었고 안방규수는 鶴의 우아함을 닮으려 애썼다.

鶴의 노니는 모습에 반한 東萊의 한 선비는 어느 달빛아래 홀로 湖水가에서 날개짓을 흉내 내어 점점 無我地境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흥을 이기지 못하여 이윽고 놀이판에서 학춤을 추게 되었다.

왜, 유독 東萊에서 학춤이 발상되었을까?

지금 東萊區 巨堤洞 一帶와 蓮山 4洞 부근은 30여년전만 해도 물이 많이 고인 沼澤地였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鶴들이 棲息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멋과 風流를 좋아했던 이 地方 선비와 한량들은 이곳에서 술과 詩를 즐기며 鶴의 그윽한 매무새에 빠져든 것이다.

보름 달빛아래 鶴이 자아내는 그윽한 자태는 歌舞를 즐겨한 우리지방 선비들의 血氣를 충분히 刺戟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 그래서 東萊의 地形에는 鶴의 形象을 닮았다 하여 이를 본따 지어진 지명이 많다. 현재의 福泉洞山 일대를 학수대(鶴首台)라 했고, 지금 이 부근을 살펴보면 鶴의 동체, 좌우날개, 목덜미 등을 방불케 하는 학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칠산동 일대를 학소대(鶴巢台), 또 현 연산 4동을 鶴岩 (황새바위) 으로 現 巨堤洞을 鶴卵 (황새알) 부락이라 불렀으며 바로 학란부락앞은 광대한 무딩기땅(沼澤地)으로 그안에 큰 황새바위(大鳥岩)가 있어 많은 황새가 떼를 지어 서식하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우리 동래지방의 선비들은 학의 노니는 자태를 함께 즐기며 학의 날개짓을 자연스레 몸에 익혀 왔다. 그래서 동래 학춤은 꾸밈이 없고 학 모양을 한탈이나 장신구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도포와 갓으로 표현할 뿐이다.

이 동래 학춤은 극히 한국적이고 서민적이며 우아하고 고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춤이다.

◎동래학춤은 배김 사위가 특징으로 앞배김, 뒷배김, 모듬배김, 겹배김의 네가지로 동래학춤만이 갖는 독특한 춤 사위이다. 궁중학무와는 달리 검정갓과 흰도포로만 표현되고 있다.

◎이동래 학춤은 비약태(학이 날아오르는 모양), 정태(한쪽 다리로 물가에 서있는 모양), 어름태(모이를 앞에 놓고 어르는 모양), 애정태(구애를 하는 모양), 역동태(환희에 넘쳐 너울거리는 모양)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이춤이 갖는 서민적 지방민의 기질과 소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통 민속춤이 갖기 쉬운 양반 특권층의 야유나 한(恨)의 표현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을 참작함에 전통 민속적인 색채가 강하며, 민속무로서의 가치가 높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 전승 보존되고 있다.

2. 특징적 동작

- ◎한발을 제치고 한 발로 똑바로 서서 양팔을 쳐든채 팔목에 힘을 빼어 두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크게 비상하는 춤사위
- ◎왼쪽 팔을 낮추고 오른쪽 팔을 올린 채 다리를 떨며 회전하는 사위
- ◎한 쪽 발을 앞으로 배기면서 다시 풀어나오는 사위(보통 배김새와는 좀 다름)
- ◎두팔을 뒷짐지듯 뒤로 허리에 모우고 다리를 꼬으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두리번 살피는 춤사위 등이다.

동래학춤 출연자명단

임원 / 총 지 휘 : 윤우동 (이사장) • 고 증 : 문장원
 지도위원 : 천재동 • 지도위원 : 김온경 (부산여대교수)

담 당	성 명	성 별	연 령	담 당	성 명	성 별	연 령
주무수	김 동 원	남	60	장 고	김 덕 선	남	66
조무수	문 장 원	"	69	"	이 주 희	"	63
"	박 점 실	"	73	"	박 은 선	"	61
"	양 세 주	"	64	"	신 태 형	"	54
"	김 영 수	"	50	북	이 태 진	"	57
"	이 도 근	"	49	"	이 홍 배	"	59
"	김 경 화	"	34	"	김 두 용	"	58
"	정 영 배	"	39	"	양 극 노	"	61
"	최 형 규	"	34	징	양 극 수	"	68
"	장 재 근	"	53	"	전 일 근	"	57
"	김 온 경	여	48	구 음	유 금 선	여	55
평 최	변 동 식	남	63	기 수	이 춘 호	남	32

시 연 종 목 해 설

좌수영 어방(漁坊)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1. 유 래

左水營이 부산지방의 水營洞에 자리잡은 것은 조선조 임진왜란(선조25년) 전후였다고 되어있으나 때때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효종 3년(1652년) 이후 고종32년(1895년) 혁파(革罷)때까지 243년간은 절도사가營을 다스린 셈이다. 따라서 어로요(漁撈謠)는 훨씬 예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漁坊놀이는 이 시기부터 전래해 오던 것을 1970년대에 와서 再現한 것이다. “漁坊 놀이”는 후릿그물로 고기를 잡는 과정을 놀이로 구성한 일종의 漁撈 勞動謠라 할 수 있는데 「내왕소리」와 「사리소리」 그리고 「가레소리」와 「칭칭소리」등 4科場으로 되어 있다.

◎첫째 마당은 내왕소리로,

후릿 그물의 양쪽 끝 다불줄에 연결하기 위한 줄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앞소리를 부르는 사람이 왕래하며 작업을 독려하는 가운데 소리를 하는데 뒷소리는 모두 합창하되 한 조에 그 우두머리를 한사람씩 정해 놓는다. 큰줄을 꼬을때 부르는 홀소리와 작은 줄을 꼬을때의 겹소리가 있다.

◎둘째 마당은 사리 소리로,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후리질 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북잡이와 선소리꾼 이외의 사람들은 요대(腰帶)를 두르고 양쪽줄에 7~8명씩 붙어서 줄을 당긴다.

“오오사리여”라는 뒷소리가 특징적이다.

◎셋째 마당은 가레소리로,

잡은 고기를 어대(漁袋)에서 풀어내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오-오가레야”라는 뒷소리가 특징적이다.

◎넷째 마당은 칭칭 소리로,

퐁어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퐁어를 자축할 뿐 아니라 다음의 多獲을 축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특 징

◎승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집단적 놀이로서 노래(歌)를 위주로 한 민요 무용의 성격이 짙다.

◎후리질과 같은 어로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놀이의 再現은 민요의 전승및어로 기구와 도구의 전승등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어방놀이는 하나의 작업규율 속에서 행해지므로 협동과 단결심을 함양하는데 뜻이 더 깊다고 하겠다.

좌수영 어방놀이 출연자

담 당	출 연 자	담 당	출 연 자
• 기 수 (보존회기)	이종근	• 악 사	도태일의외 10名
• 기 수 (어방기大)	이명호	• 선 주	윤수만
• 기 수 (어방기小)	김기태	• 선 창	김우근
• 기 수 (봉 황 기)	정운진의외 1名	• 북	박남수
• 기 수 (선 주 기)	조덕철외 1名	• 어 망	송기주의외 9名
• 가례 (大)	이선기의외 1名	• 광주리 (大)	오성곤외 1名
• 가례 (小)	박등무외 3名	• " (小)	김남이의외 27名

* 임 원

- 총지휘 : 박 재 숙(이 사 장)
- 기 획 : 김 종 철(명예회장)
- 총 무 : 태 덕 수(사무국장)
- 재 정 : 이 범 찬
- 이 사 : 라 기 복
- 이 흥 준
- 김 부 돌
- 김 태 문
- 김 학 문
- 조 해 수
- 박 기 천

釜山の民俗團體

傳統藝術 保傳活動

● 社團 釜山民俗藝術保存協會
法人

(釜山直轄市 東萊區 溫泉洞 山13-3番地)
TEL. 53-0092

- 東萊野遊
- 大 笊 散 調
- 東萊학춤
- 東萊地神밧기

● 社團 水營古蹟民俗保存會
法人

(釜山直轄市 南區 水營洞 251-10番地)
TEL. 752-2947

- 水 營 野 遊
- 左水營漁坊놀이
- 水營農廳놀이

● 社團 釜山農樂保存協會
法人

(釜山直轄市 西區 富民洞3街 34-3番地)
TEL. 242-3100

- 釜山農樂

- 豐 漁 祭
- 忠 烈 祠 祭 享



전통문화 계승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